

1QS(공동체 규율) 5단의 번역 문제와 신학적 논점 연구*

이윤경**

1. 서론

1QSerek(이하 1QS)은 쿵란공동체의 대표적인 규율 문서이다.¹⁾ 이 문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념하고, 공동체 가입, 퇴출, 승진, 강등 등을 규율한다. 1QS는 1947년 베두인이 최초로 발견한 일곱 개의 쿵란사본 중 하나이며, 부록으로 달린 1QSa(회중 규율 혹은 메시아 규율)와 1QSB(축복 규율)와 함께 발견되었다. 1951년 뷰로즈, 트레버, 브라운리는 이 문서를 ‘훈련 교범서(The Manual of Discipline)’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²⁾ 그러나 현재 이 문서는 ‘공동체 규율(The Rule of the Community)’로 통칭된다. 1QS는 CD(다메섹 문서)와 더불어 쿵란공동체 형성의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³⁾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182).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조교수.

- 1) 본 논문은 다음의 텍스트를 주 텍스트로 사용한다. J. H. Charlesworth, ed., *The Dead Sea Scrolls: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vol. 1 Rule of the Community and Related Docu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비교 텍스트로 다음 책을 참조한다. F. G. Martinez and E. J. C. Tigchelaar,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1* (Grand Rapids: Eerdmans, 2000). 이 책의 우리말 번역 참조. F. 마르티네즈, E. 티스셀라아르, 『사해문서 1』, 강성열 역 (과주: 나남출판사, 2008).
- 2) Burrows, M., with the assistance of J. C. Trevor and W. H. Brownlee, eds., *The Dead Sea Scrolls of St. Mark's Monastery, vol. II. Fasc. 2: Plates and Transcription of the Manual of Discipline* (New Have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51).
- 3) 예를 들어, 험펠은 ‘다메섹 문서’와 ‘공동체 규율’에 나타난 규율을 분석함으로써, ‘다메섹 문서’는 종파적 문서가 아니라, 쿵란공동체의 모체가 된 집단을 위한 규율이었고, 후에 쿵란에 모여 살게 된 종파적 성격의 무리를 위한 규율이 바로 ‘공동체 규율’이라고 보았다. C. Hempel, *The Laws of the Damascus Document: Sources, Traditions, and Redaction* (Leiden: Brill, 1998). 콜린스는 ‘다메섹 문서’와 ‘공동체 규율’을 편집비평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문서들의 편집자들이 다양한 단계의 공동체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 J. Collins, *Beyond the Qumran Community: The Sectarian Movement of the Dead Sea Scrolls* (Rapids: Eerdmans, 2010).

1QS는 대략 기원전 100-75경의 작품으로 11개의 단(column)이 현존한다.⁴⁾ 1QS는 크게 1-4단과 5-11단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⁵⁾ 본 논문은 구체적인 규율이 시작하는 첫 단인 5단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를 기초로 쿵란공동체의 역사와 신학을 대표하는 ‘공동체 규율’ 문서의 규율 부분 첫 단인 제 5단의 내용 분석을 통해 쿵란공동체의 신학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QS(공동체 규율) 개요

1QS는 쿵란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이다. 쿵란공동체가 이 문서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는 현존하는 이 문서의 숫자를 통해서 확인된다. 1QS의 사본은 대략 15-16개가 발견되었다(4QSa-j=4Q255-64, 5Q11; cf. 5Q13). ‘공동체 규율’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본이 발견된 것은 몇 개의 중요한 성서 사본과 1에녹서뿐이다.⁶⁾ 쿵란공동체가 이토록 많은 숫자의 사본을 만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1QS가 쿵란공동체의 근간을 보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규율을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2.1. 1QS 구조

이미 언급한 것처럼, 1QS는 크게 1-4단과 5-11단으로 나눌 수 있다.⁷⁾ 전반

4) 1QS의 연대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F. M. Cross, “Paleographical Dates of the Manuscripts”, J. H. Charlesworth, ed., *The Dead Sea Scrolls: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I. Rule of the Community and Related Docu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57. 1QS에서 가장 손상이 심한 부분은 바다 부분이다. 델 메디코는 이런 손상이 흔히 생각하듯 박쥐나 벌레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소각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게니자(Genizah)에 보관하기 전 사본을 부분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소각하는 랍비 전통에 따라 소각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M. Burrows, *More Light on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8), 17.

5) 4Qsd 사본만이 1QS의 모든 단을 포함하고 있다.

6) 1QS보다 더 많은 사본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편(39개), 신명기(33개), 1에녹서(25개), 창세기(24개), 이사야(22개), 회년서(21개), 출애굽기(18개), 레위기(17개). 이 숫자는 민수기(11개)나 예레미야(6개)의 사본 수보다 많다. J. VanderKam and P. Flint, *The Meaning of the Dead Sea Scrolls* (San Francisco: Harper, 2002), 150.

7) 1QS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묘사(1:1-15), (2) 계약 기념식(1:16-2:18), (3) 연례 공동체 인구조사(2:19-3:12), (4) 두 영에 대한 소고(3:13-4:26), (5) 공동체의 태도(5:1-7), (6) 공동체 구조와 기능(5:8-6:23), (7) 형법(6:24-7:25), (8) 공동체 위원회(8:1-10a), (9) 성공적인 후보자를 위한 지시사항들(8:10b-16a), (10) 형법(8:16b-9:2), (11) 입술의 회생제사(9:3-5a), (12) 구분에 대한 가르침(9:5b-11), (13) 훈련교관들을 위한 지시사항들(9:12-26), (14) 결론 시편(10:1-11:22).

부의 첫 4단은 공동체의 이상과 목적을 서술하고, 공동체 입문예식과 연례 계약 갱신 의식을 소개하고, 공동체의 이원론적 사고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후반부는 규율집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1QS, 즉 *Serek (Rule)*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규율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5단 1행부터이다.⁸⁾

2.2. 1QS 5단 vs. 4Q256, 4Q258

쿰란 제 1동굴에서 발굴된 1QS의 편집과정에 대한 논란은⁹⁾ 제 4동굴에서 발굴된 4QS 문서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¹⁰⁾ 특히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1QS 5단에 해당하는 4Q256과 4Q258의 텍스트는 눈여겨 볼 만하다. 4Q256 9단과 4Q258 1단은 1QS 5:1-20과 겹치는 부분인데, 이 두 텍스트는 4Q256이 완전모음 형태를 사용하고 4Q258이 단축모음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러나 1QS 5:21이하 부분은 4Q256에는 나타나지 않고, 4Q258에는 나타난다. 이 두 4QS의 특징은 1QS의 축약본과 같다는 점이다.¹¹⁾ 그래서 4QS 본문은 1QS 5단의 많은 부분을 줄을 건너뛰면서 읽는 기분이 들게 한다.

무엇보다도, 4QS와 1Q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5단의 시작 행에서 드러난다. 즉, 1QS 5단이 ‘스스로 헌신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규율

8) G. Vermes, “Preliminary Remarks on Unpublished Fragments of the Community Rule from Qumran Cave 4”, *Journal of Jewish Studies* 42 (1991), 254.

9) 제롬 머피 오코너(Jerome Murphy-O'Connor)가 최초 제기하고 후에 뿌이이(J. Pouilly)가 발전시킨 4단계 편집설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1QS8:1-10:8a는 쿰란공동체가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한 부분이다. (2) 2단계: 1QS 8:16b-9:2(뿌이이는 여기에다 8:10b-12a를 추가한다)는 쿰란공동체 설립 후에 추가된 규율이다. (3) 3단계: 1QS 5-7(뿌이이는 이 부분에서 5:13b-6:8a는 후대 첨가로 본다)단은 공동체 생활을 규율한 추가 규율집이며, 공동체 회원숫자가 팽창할 시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4) 4단계: 1QS 1-4단과 10:9-11:22(5:13b-15a는 후대 첨가)는 쿰란공동체 구성원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 후대에 첨가 된 것이다. M. A. Knibb, “Rule of the Community”, L. H. Schiffman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95에서 재인용. 1QS의 편집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C. Hemp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the S-Tradition. A New Paradigm”, *Revue de Qumran* 22 (2006), 389-401.

10) 제 5동굴에서도 두 개의 ‘공동체 규율’ 문서가 발굴되었다(5Q11, 5Q13).

11) 학자들은 1QS와 4QS 중 어느 텍스트가 보다 원본(original)에 가까운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거듭하였다. 베머스(Vermes)와 메쑤(Metso)는 1QS가 4QS보다 더 오래된 형태이며, 4QS는 1QS의 축약본으로 보는 반면, 알렉산더(P. Alexander)는 비록 서체상으로는 4QS가 더 후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4QS가 더 본래의 형태의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다고 본다. M. A. Knibb, “Rule of the Community”, 795-797 참조.

(וזה הסרך לאנשי היחד המתנדבים)'이라고 시작하는 데 반해서, 4Q256 9단과 4Q258 1단은 공히 '스스로 헌신한 율법의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일의 미드라쉬(מדרש למשכיל על אנשי התורה המתנדבים)'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1QS와 4QS는 문학의 장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QS는 본문이 'סרך'(규율)임을 분명히 천명한다면, 4QS 본문은 'מדרש למשכיל'(마스크일의 미드라쉬)라고 시작한다. 이에 따라서, 본문의 칭증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QS는 '스스로 헌신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규율이라고 명시한 반면, 4QS는 '스스로 헌신한 율법의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일'에게 주는 미드라쉬라고 밝히고 있다. 즉, 1QS는 공동체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규율서라면, 4QS는 공동체의 리더를 위한 미드라쉬라고 본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1QS와 4QS는 같은 듯 보이지만, 그 시작부터 매우 다른 장르의 텍스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주제이며, 쿰란공동체의 종파적 문서의 대표격인 1QS, 그 중에서도 '규율'의 시작을 여는 5단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3. 1QS 5단 본문 번역

1QS 5단의 히브리어는 쿰란 히브리어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¹²⁾ (1) 철자에서 *scriptio plena*의 원칙을 지켜 완전모음 형태를 선호한다(대표적 예: לא 대신에 לוא, כי 대신에 כיא). (2) 형태론적으로, 3인칭 대명사로 הוא, 대명사 접미어에 'final ה'를 붙이거나(예: במה),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로 הו 형태를 선호한다(예: דרשהו).¹³⁾ 본 논문은 한글번역이 히브리어에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 선행구에, 혹은 후행구에 붙여서 해석할 때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וזה הסרך לאנשי היחד¹⁴⁾ המתנדבים לשוב מכול רע ולהחזק בכול אשר 1

12) 쿰란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엘리샤 키르론,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한 유대광야문서의 공헌”, 최창모, 박미섭 편역, 『고대 히브리어 연구』(서울: 건대출판부, 2001), 185-198. 구체적으로 구약본문과 쿰란문서의 어법을 비교한 우리 말 논문은 다음을 참조. 천민희, “다니엘서와 관련된 쿰란 두루마리와 마소라 본문의 관계와 철자법 비교”, 『성경원문연구』 18(2006), 43-62.

13) 샌즈-바틸로스, 『히브리어 발달사』, 최명덕, 박미섭 역(서울: 기혼, 2011), 153-160.

14) מתנדבים hith ptc mp (נדב to freely offer). 이 단어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A. Fitzgerald, “MTNDBYM in 1Q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6:4 (1974), 495-502. 이 논문은 히브리어 동사 נדב는 자발적 입문을 원칙으로 삼은 쿰란공동체 회원을 지칭하는 특수용어

צוה לרצונו להברל מערת

이것은 스스로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규율이다. 이들은 모든 약에서 돌아서고, 그의 원대로 명령한 모든 것을 확고히 지키며,

2 אנשי העול להיות ליחד בתורה ובהון ומשובים על פי בני צדוק הכהנים
שומרי הברית ועל פי רוב אנשי

사악한 자들의 모임으로부터 구분되고, 율법과 재산을 지닌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계약을 지키는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따라, 계약을 확고히 지키는 공동체의 다수를 따라,

3 היחד המחזקים בברית על פיהם יצא תכון¹⁵⁾ להגורל לכול דבר לתורה
ולהון ולמשפט לעשות אמת יחד לעונה

그들을 따라, 그 당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는 모든 것과 율법, 재산, 판결¹⁶⁾과 진리의 일치, 겸손,

4 צדקה ומשפט ואהבת חסד והצנע לכת בכול דרכיהם¹⁷⁾ לוא ילך
איש בשרירות לבו לתעות אחר לבבו

공의, 의¹⁸⁾, 자비로운 사랑을 행할 것과 그들의 모든 길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그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견지 말아야 하며, 그의 마음,

5 ועיניהו ומחשבת יצרו¹⁹⁾ וואם למול ביחד עורלת יצר ועורף קשה ליסד
מוסד אמת לישראל ליחד ברית

눈과 성향의 생각을 쫓아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성향과 곧은 목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계약 공동체를 위한 진리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6 עולם לכפר לכול המתנדבים לקודש באהרון ולבית האמת בישראל
והנלוים עליהם ליחד ולריב ומשפט

그들은 아론의 성소와 이스라엘의 진리의 집을 위해 헌신한 모든 자들

로 사용되었음을 논증한다.

- 15) גור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돌을 던져서 결정된 토지, 운명, 분배된 몫’이다. 마르티네즈(Martinez)와 찰스웰스(Charlesworth)는 ‘체비뽑기’(각각 decision by lot과 determination of the lot)로 번역한다. 키르론은 쿰란문서에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appointment’, ‘predestination’, ‘time’, ‘congregation’으로 본다. E. Qimr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106. 본 논문은 키르론의 제안을 쫓고, 한글로는 쿰란공동체의 종파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당’으로 번역한다.
- 16) משפט는 여기에서 ‘의’보다는 ‘판결’로 번역한다(예: 출 28:15, 30).
- 17) 쿰란문서 중, ‘미완료+ לוא אשר’ 형태가 명령 혹은 금지를 의미하는 주절로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1QS에서이다(5:4, 10, 14, 15-16; 8:25). Qimron, op.cit., 77-78.
- 18) משפט는 여기에서 ‘의’로 번역한다(예: 신 10:18).
- 19) וואם은 כיא אם의 필사오류로 본다. 4QS, 5QS 사본에는 אם כיא 으로 나온다. 가넷은 첫 음을 가 아닌 1로 보고, “신들 중의 신, 주들 중의 주”로 해석한다. P. Gamet, *Salvation and Atonement in the Qumran Scrolls* (Tübingen: Mohr [Paul Siebeck], 1977), 61, n. 4.

과 공동체에 가입한 모든 자들을 속죄해야 한다. 소송과 판결을 통해²⁰⁾

להרשיע כול עוברי חוק ואלה²¹⁾ תכון דרכיהם על כול החוקים האלה
בהאספם ליחד כול הבא לעצת היחד

그들은 규율을 위반한 모든 자들에게 유죄를 선언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 모든 규율에 대한 그들의 길에 대한 정책이다. 그들이 그 공동체로 모일 때 그 공동체의 회합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8 יבוא בברית אל לעיני כול המתנדבים ויקמ על נפשו בשבועת אסר²²⁾
לשוב אל תורת מושה ככול אשר צוה בכול

스스로 헌신한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계약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그의 혼을 다해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도록 의무의 맹세를 해야 할 것이다.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9 לב ובכול נפש לכול²³⁾ הננלה ממנה לבני צדיק הכוהנים שומרי הברית
ודורשי רצונו ולרוב אנשי בריתם

그의 마음과 혼을 다해, 계약을 지키며 그의 뜻을 좇는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따르며, 또한 그들 계약의 사람들의 다수, 즉

10 המתנדבים יחד לאמתו²⁴⁾ ולהתלך ברצונו ואשר יקים בברית על נפשו
להברל מכול אנשי העול ההולכים

그의 진리와 뜻을 좇아 행하기로 스스로 헌신한 공동체를 따른다. 그의 혼을 다해, 악한 길로 걷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분되도록, 그는 계약으로 맹세해야 할 것이다.

11 תעו בדרך הרשעה כיא לוא החשבו בבריתו כיא לוא בקשו ולוא דרשהו
בחוקיהו לדעת הנשתרות אשר

20) 이 구절에 대한 찰스웰스와 마티네즈의 해석이 다르다. 찰스웰스는 1QS 본문과 4QS 사본을 비교하여 ‘소송과 판결’을 7행에 붙여 해석한다. 이에 반해 마티네즈는 6행의 ‘공동체와 소송과 판결’을 하나의 연결된 구로 보아 이 세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석한다. 이어지는 7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맥상 찰스웰스의 번역이 더 옳다고 본다.

21) תכון은 구약성서 히브리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쿰란문서에서는 자주 보이는 ‘동사형 명사(verbale noun)’로서, 학자들은 ‘measure’(Qimron, op.cit., 형태 설명은 65, 단어 뜻은 115), ‘determinations’(Charlesworth, op.cit., 60), ‘regulations’(Martinez, op.cit., 81)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סרך과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규율’로 번역하기보다는, 키르론의 번역 제안을 따라, 우리말로 ‘조치,’ ‘정책,’ ‘기준’ 등이 좋을 듯한데, 여기서는 ‘정책’으로 번역한다.

22) 구약에서 bind(שבועת אס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쓰이는 곳은 민 30:13이다.

23) הננלה(9행)와 הנלות(12행)와 הנשתרות(11행)는 1QS에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단어들의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4.3 단락을 참조하라.

24) להתלך는 원래 להתהלך인데, 후음 하가 탈락한 경우이다. 키르론은 쿰란문서에서 주로 א에서, 혹은 이보다 낮은 빈도수로 ח이 탈락한 경우가 대략 80여 곳이 있다고 밝힌다. Qimron, op.cit., 25.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계약 안에 있는 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은 숨겨진 것을 알고자, 그의 계명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른다.

בם לאששמה והנגלות עשו ביד רמה לעלות אף למשפט ולנקום נקם
באלות ברית לעשות בם משפטים

그러나 그들은 계시된 것들을 교만한 손으로 다루어, 분노가 심판을 야기하고, 계약의 저주로 인해 보복케 하며, 그들 가운데

גדולים כלכלת עולם לאין שרית²⁵⁾ אל יבוא במים לגעת בטהרת אנשי
הקודש כיא לוא יטהרו

남김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큰 심판을 한다. 거룩한 자들의 정결에 닿지 않도록,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כי אם שבו מרעתם כיא טמא בכול עוברי דברו ואשר לוא יוחד עמו
בעבודתו ובהונו פן ישיאנו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의 말씀을 위배한 모든 자들과 더불어 부정하다. 어느 누구라도 그의 일과 재산에서 그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가 악과 죄를 들어 올리지 않는 한²⁶⁾,

עוון אשמה כיא ירחק ממנו בכול דבר כיא כן כתוב מכול דבר שקר
תרחק ואשר לוא ישוב איש מאנשי

모든 것에서 그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들은 어느 누구라도

היחד על פיהם לכול תורה ומשפט ואשר לוא²⁷⁾ יוכל מהונם כול ולוא
ישתה ולוא יקח מידם כול מאומה

어떤 율법이나 결정에 관해 그들의 말에 대해 대꾸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그들의 소유물 중 어떤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그들의 손에서부터

אשר לוא במחיר כאשר כתוב חדלו לכם מן האדם אשר נשמה באפו
כיא במה נחשב הואה כיא

어떤 것도 값없이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록된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는뇨?”²⁸⁾ 왜냐하면

25) 구약에서 לוא+미완료형은 אל+미완료형보다 강력한 금지를 나타낸다. 구약에서 אל은 주로 jussive/cohortative 형태를 동반하여 권고나 소망을 표현한다. 그런데 쿨란문서에서 אל+미완료형은 구약 용례와 달리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 키르론은 특별히 1QS의 אל+미완료형의 금지명령을 대표적인 용례로 제시한다. Qimron, op.cit., 80.

26) 우리말 의미로는 ‘제거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다.

27) יוכל은 אכל의 미완료형으로 א이 탈락된 경우이다. 키르론은 이런 쿨란문서의 특징을 ‘후음 약화(Weakening of the gutturals)’ 현상으로 설명한다. Qimron, op.cit., 25.

18 כּוֹל אֲשֶׁר לֹא נִחְשְׁבוּ בְּבְרִיתוֹ (29) לְהַבְרִיל אֹתָם וְאֵת כּוֹל אֲשֶׁר לָהֶם וְלֹא יִשְׁעַן אִישׁ הַקּוֹדֵשׁ עַל כּוֹל מַעֲשֵׂי

그의 계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구분하라. 거룩한 각 사람은 헛된 행동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19 הַבֵּל כִּיָּא הַבֵּל כּוֹל אֲשֶׁר לֹא יָדְעוּ אֵת בְּרִיתוֹ וְכוֹל מְנַאֲצֵי דְבְרוּ יִשְׁמֹד מִתְּחֵל וְכוֹל מַעֲשֵׂיהֶם לְנֵדָה

왜냐하면 그의 계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헛되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은 땅에서 멸망할 것이며 그의 모든 행동들은 그 앞에서 더럽다.

20 לְפָנָיו וְטָמֵא בְּכוֹל הוֹנֵם וְכִיָּא יְבוֹא בְּבְרִית לַעֲשׂוֹת כְּכוֹל הַחוֹקִים הָאֵלֶּה לְהַיְחָד לְעֵדֶת קוֹדֵשׁ וּדְרָשׁוּ

그들의 모든 재산도 부정하다. 그는 공동체, 즉 거룩한 자의 모임을 위한 이 모든 율례대로 행하기 위해, 계약에 들어갈 때, 그들은 점검할 것이다.

21 אֵת רוּהוּם בִּיחָד בֵּין אִישׁ לְרֵעֵהוּ לְפִי שְׁכָלוֹ וּמַעֲשָׂיו בְּתוֹרָה עַל פִּי בְּנֵי אֶהְרֹן הַמִּתְנַדְּבִים בִּיחָד לְהַקִּים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그들의 영을 그의 통찰과 행동에 따라, 율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헌신한 아론의 아들들을 따라,

22 אֵת בְּרִיתוֹ וּלְפָקוֹד אֵת כּוֹל חוֹקָיו אֲשֶׁר צִוָּה לַעֲשׂוֹת וְעַל פִּי רַב רְשׂוּאָה הַמִּתְנַדְּבִים לְשׁוּב בִּיחָד לְבְרִיתוֹ

그의 계약을 세우기 위해, 또 그가 행하도록 명한 모든 그의 규율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공동체를 통해 그의 계약으로 돌아오고자 스스로를 헌신한 이스라엘의 다수를 따라.

23 וּכְתַבְתֶּם בְּסֵרֶךְ אִישׁ לְפָנָיו רֵעֵהוּ לְפִי שְׁכָלוֹ וּמַעֲשָׂיו לְהַשְׁמַע הַכוֹל אִישׁ לְרֵעֵהוּ הַקָּטָן לְגַדּוֹל וְלַהֲיוֹת

각 사람은 그의 동료 앞에, 그의 통찰과 행동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될 것이다. 모든 자들은 그의 동료에게,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순종한다.

24 פּוֹקְדִים אֵת רוּחָם וּמַעֲשֵׂיהֶם שְׁנָה בְּשָׁנָה לְהַעֲלוֹת אִישׁ לְפִי שְׁכָלוֹ וְתוֹם דְּרָכּוּ וּלְאַחֲרוּ (31) כְּנַעֲוִיתוֹ לְהוֹכִיחַ

그들의 영과 행동을 그의 통찰과 그의 행동의 온전함에 따라 매년 검토한다. 이는 각자를 승격하기 위해, 혹은 그의 죄에 따라 그를 강등하

28) 이사야 2:22

29) 구약과 쿰란문서에서 공히 5+부정사는 정동사의 역할을 한다. 18행에서는 명령어로 쓰이고 있다. Qimron, op.cit., 71.

30) קוֹדֵשׁ 와 לְהַיְחָד 와 동격관계이다. Y. Thorion, "The Use of Prepositions in 1QSerek", *Revue de Qumran* 10:3 (1981), 419.

31) נַעֲוִיתוּ (sin, perverseness)는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쿰란 히브리어이다.

기 위해, 그의 사악함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25 אִישׁ אֶת רֵעֵהוּ בִּאֲמֶת וְעִנּוּהוּ וְאַהֲבַת חֶסֶד לְאִישׁ אֵל יִדְבֹר אֱלוֹהֵיהוּ בְּאֵף
או בתלונה

각 자를 진실, 겸손, 자비로운 사랑으로 서로에게 훈계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그의 동료들 화나 욕설이나

26 או בעורף קָשָׁה או בקנאת רוח רשע ואל ישנאהו [בעורלת] לבבו כי
ביום יזכיהנו ולוא

곧은 목 혹은 악한 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를 그의 마음에서 미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그 날에 훈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4. 1QS(공동체 규율) 5단 본문의 신학적 관심사

‘공동체 규율’ 문서에서 본격적으로 ‘규율’이 시작되는 첫 부분인 5단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5:1-7a 공동체에 헌신한 자들이 들어라!
- (2) 5:7b-10a 계약공동체에 들어오라!
- (3) 5:10b-20a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라!
- (4) 5:20b-6:8a 공동체 생활 조직을 위한 규율

4.1. 1QS 5:1-7a 공동체에 헌신한 자들이 들어라!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1QS 5단의 시작 부분에 대한 변형은 제 4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즉, 1QS 5단 1행은 먼저 문서 전체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규율’이라는 선언을 통해 ‘규율서’임을 분명히 한다. 규율서의 서두인 1, 2a행은 콤파공동체 회원들의 정체성을 천명한다. 그들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헌신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자발적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인지를 네 개의 라메드(ל) 부정사 연계형 문장을 통해 설명한다. 그것은 각각 ‘모든 악으로부터 돌아서고(לְשׁוֹב),’ ‘그의 원대로 명령한 모든 것을 확고히 지키며(לְהַחֲזִיק),’ ‘사악한 자들의 모임으로부터 구분되어(לְהַבְדִּיל),’ ‘율법과 재산을 지닌 공동체가 되려는(לְהִיוֹת)’ 자들이다.³²⁾

32) 이 네 개의 연계형 구문에 대한 문법적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P. Garnet, “Cave 4 ms Parallels to 1QS 5:1-7: Towards a Serek Text Histor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997), 73.

2b행부터 3행에는 이 규율을 제정한 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는 세 개의 **על פי** 구절이 나온다. 이 세 개의 **על פי** 구절 중 마지막의 **על פיהם**은 3인칭 남성복수 접미사를 통해 앞의 두 집단을 지칭하는 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첫 두 개의 **על פי** 구절은 쿰란공동체가 규율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בני צדוק הכהנים**)’과 ‘공동체의 다수(**רוב אנשי היחוד**)’이다. 쿰란공동체의 최고 권력 혹은 권위를 지닌 집단은 이들 두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쿰란공동체가 규율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진 자들로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제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쿰란공동체는 여러 문서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사독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사독계 제사장 집단임을 강조하였다.³³⁾ 한편, ‘공동체의 다수(**רוב אנשי היחוד**)’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논의의 대상이다. 바로 이어지는 1QS 6단에는 ‘**הרבינו**’ 형태가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이때는 분명 쿰란공동체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정황상, 5단 2행의 ‘공동체의 다수’는 입례식의 모든 절차를 완수하고 정회원이 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행 끝부분부터 5a행은 규율을 통해 공동체의 삶이 지향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לעשות**의 부정사 연계형 형태의 목적절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진리의 일치, 겸손, 공의, 의, 자비로운 사랑을 행할 것과 그들의 모든 길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그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견지 말아야 하며, 그의 마음, 눈과 성향의 생각을 쫓아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b행-7a행은 **כי אם** 절로서 앞 절에 나오는 내용의 추가 부분이다. 이 문장은 라메드(**ל**) 부정사 연계형으로 된 네 개의 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계형 동사들의 목적어를 보지 않고 이 연계형 동사의 뜻만 보아도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할례하다(**למוול**)’, ‘기초를 두다(**ליסד**)’, ‘속죄하다(**לכפר**)’, ‘유죄를 선언하다(**להרשיע**)’. 그러므로 3-7행 상반부는 규율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이 부정사 연계형 구절들은 1QS 전체의 규율의 목적을 알려준다. 왜 이런 규율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33) 무엇보다도, 쿰란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의의 스승’은 제사장으로 불린다(4QpPs-a [4Q171] 3.15; 1QpHab 11.8). ‘사독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다메섹 문서(4Q266-273, 5Q12, 6Q15), 다메섹 규율(4Q265), 회중규율(1Q28a), 성구해설집(4Q174), 페세르 이사야(4Q163) 등이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J. Liver, “Sons of Zadok the Priests in the Dead Sea Sect”, *Revue de Qumran* 6:1 (1967), 3-30; A. Hunt, *Missing Priests: the Zadokites in Tradition and History* (New York: T&T Clark, 2006); A. I. Baumgarten, “The Zadokite Priests at Qumran: A Reconsideration”, *Dead Sea Discoveries* 4:2 (1997), 137-156.

1QS 전체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단락으로 볼 수 있다.

4.2. 1QS 5:7b-10a 계약공동체에 들어오라!

이 단락은 쿠파공동체는 ‘계약공동체’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그 계약의 계시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 단락의 첫 행인 7b행은 ‘אלה תכון דרכיהם(이것들은 그들의 길들에 대한 정책이다)’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린다(참조. 9:21b). 8행에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바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계약’에 들어온다는 것이며, 그 계약은 ‘모세의 토라’로 돌아갈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쿠파공동체의 입문자들은 ‘서약’을 해야 하는데, ‘다메섹 문서’도 이 맹세 서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CD 6:13b-15a).³⁴⁾ 요세푸스 역시 옛세네파에 입문하는 자는 서약을 한다고 보도한다(전쟁기 2.139-142). 또한 쿠파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 입문을 모세계약의 갱신과 동일시하며, 이 ‘계약’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을 악으로 규정한다. 즉, 이들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모세계약의 갱신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³⁵⁾ 9-10a행은 2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인 사독의 아들들’과 ‘스스로 계약에 헌신한 공동체의 다수’가 언급되는데, 바로 이들에게만 계약의 비밀이 ‘계시’된다. 쿠파공동체는 ‘계시’의 배타적 담지자라는 정체성을 선포하고, 내적으로는 공동체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3. 1QS 5:10b-20a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라!

10b-20a행은 쿠파공동체에 입문하는 자들이 ‘악한 무리들’과 구분됨으로써, 정체성을 세워갈 것을 규율로서 명하고 있다. 먼저, 앞 단락인 10b-13a행은 계약공동체 입문자들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분(גבול)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히브리어 גבול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구분 짓는 것(대상 23:13)과 레위인들을 구분하는 것(민 8:14)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쿠파공동체는 ‘구별 짓기’를 통하여 공동체의 집단정체성을 수립하

34) 쿠파공동체 입문에 대해서는 1QS 6.13-24에 다시 반복된다. ‘공동체 규율’ 외에도 쿠파공동체 입문에 대해서는 CD 15:6-15, 요세푸스의 전쟁기 2.137-39에도 언급된다.

35) 쿠파공동체의 계약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계약 신학”, 『구약논단』 20 (2006), 60-82. 안근조, “A Reconsideration of CD 9:16-10:3 on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성경원문연구』 27 (2010), 183-205.

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구별 짓기’는 11행의 הנשתרות(the hidden; 감춤)와 12행의 הנגלות(the revealed; 드러냄)라는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쿵란공동체는 ‘הנגלות/הנגלה’라는 단어를 통해 배타적 진리를 소유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³⁶⁾ 즉, 쿵란공동체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악한 무리들’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들 ‘악한 무리들’은 쿵란공동체에만 계시된 숨겨진 진리를 찾지도 않고, ‘의의 제사장’에게 계시된 율법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 자들로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운명에 놓인 자들이다.

후반 단락인 13b-20a행은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쿵란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행동수칙들을 상술하고 있다. 먼저, 13b행은 ‘악한 무리들’이 거룩한 자들이 사용하는 물에 닿는 것을 금하고 있다. 쿵란공동체의 정결례는 단순히 입례의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체식사 때마다 정결예식을 행하였다.³⁷⁾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닿아서 안 된다’는 규정은 정결예식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정결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반드시 ‘악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내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14-19행은 ‘미완료+אשר לוא’ 반복어귀를 통하여 쿵란공동체 회원들이 ‘악한 무리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14행 ‘אשר לוא יוחד’(연합하지 말라)’ 악과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악한 자의 일이나 재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15행 ‘אשר לוא ישוב’(대꾸하지 말라)’ 입문자는 율법이나 결정에 관해 공동체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b이하의 단락에서 더욱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3) 16행 ‘אשר לוא יוכל...ולוא ישחה ולוא יקח’(먹지도, 마시지도, 취하지도 말라)’ (4) 17행 ‘אשר לוא במחיר’(값없이 ~하지 말라)’ 어느 누구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의 소유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규정으로 보아, 쿵란공동체는 완전히 고립되고 독립된 자급자족 공동체가 아니라, 일정 정도 외부와 상거래를 하였으며, 돈을 소유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18-19행에서는 ‘... כול אשר לוא’ 구문을 두 번 연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악한 무리들’을 묘사하고 있다. 즉, כול אשר לוא נחשבו בבריתו(그의 계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자들)와 כול אשר לוא ידעואת בריתו(계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악한 무리들

36) L. H. Schiffman, *Halakah at Qumran* (Leiden: Brill, 1976), 22-32.

37) 이윤경, “쿵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טהרה)”, 『구약논단』 15 (2009), 144-161.

을 서술하는 형용사 לַבְּה(‘헛되다’)이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가장 유명한 용례는 전도서에 나타난 것으로 인간 삶의 허무성을 표현한다. 또한 구약에서 이 단어는 우상숭배의 허무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왕하 17:15). 그런데 쿰란공동체는 이 단어를 공동체의 계약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지상에서 진멸되는 일뿐이라고 선포한다.

19b-20a에서 ‘악한 무리들’의 행동은 ‘רַרָּ(더럽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 역시 ‘טָמָא(부정하다)’고 선언한다. 구약에서 이 두 단어는 제의적 부정을 지칭한다.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월경혈을 지칭하는 ‘רַרָּ’는 제의적 부정을 총칭하는 데로 확대 사용된다. ‘טָמָא’ 역시 제사장적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예를 들어 피부질환에 걸린 환자(레 13:14; 14:36 등), 시체와 접촉한 자(민 6:12; 19:20), 동물 사체와 접촉한 자(레 11:24ff)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쿰란공동체는 ‘악한 무리들’을 도덕적 차원의 ‘악한’ 존재가 아닌, 제의적 차원의 악인으로 이해한다. 즉, 이들은 다른 제의적 부정 매개체와 같이 부정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거룩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므로, 쿰란공동체는 이들 무리와 구분되어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4. 1QS 5:20b-E 위계질서를 지켜라!

20b-23a는 새로운 회원의 입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주제는 6:13b-23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주제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1QS 문서는 후대에 편집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신입회원은 율법 안에서 그의 통찰과 행동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헌신한 아론의 아들들을 따라, 그들의 영(רוח)을 점검받아야 한다. 1QS 2:19b-23에서 이미 언급된 바처럼, 쿰란공동체는 엄격한 위계가 있는 공동체였다. 신입회원들은 사독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불리는 제사장 출신의 지도자들의 점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수(רַבִּי שְׂרָאֵל)’라고 불리는 동료들로부터도 점검을 받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신입회원들은 매년 그들의 영을 점검받고 진급을 하거나 강등을 당한다.

25행 가운데에는 빈공간이 있고, 여백에는 단락 기호가 있다. 이것은 문법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구성원들에 대한 매년 심사는 자연스럽게 결여가 발견된 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언급으로(24b-25a), 또 이에 대한 해석적 논평(5:25b-6:1)으로 이어지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쿠파공동체의 근간을 알려주는 1QS 문서의 규율 단락이 시작하는 5단을 번역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쿠파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와 규율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5단은 규율의 첫 부분을 ‘스스로 헌신한 자들’로 전제하고 시작함으로써, 공동체 회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무엇보다도 5단은 다음에 이어 나오는 상세규율들의 입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공동체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쿠파문서의 여러 곳에서 이미 입증된 바, ‘사독계 제사장’의 입법권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상세규율을 제시하기 이전, 이 모든 규율의 근본은 ‘계약 공동체’에 입문하는 것임을 환기하고 있다. 쿠파공동체는 이 계약이 바로 모세계약이며, 이들 공동체에만 ‘계시된’ 배타적 특권임을 선포한다. 즉, 쿠파공동체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로 여기며, 모세의 옛 계약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자들로 여겼다. 이들은 벨리알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시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시대 동안 그들은 다른 외부인들에게는 ‘숨겨진’ 가르침, 신비한 가르침에 대한 배타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5단은 상세규율의 서두로서, 공동체 회원들은 악한 자들과 구분되어야 함을 상세하게 언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집단 정체성을 수립한다. 특히, 5단은 ‘악한 자’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로 정의내림으로써, 쿠파공동체는 제의적으로 정결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단은 신입회원의 입회절차를 언급할 때, 공동체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권위적 지위에 대한 순응보다는 영적 위계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쿠파공동체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Keywords)

1QS, 1QS col. 5, The Community Rule.

사해사본, 공동체 규율, 공동체 규율 제 5단.

(투고 일자: 2012. 1. 26, 심사 일자: 2012. 2. 24, 게재 확정 일자: 2012. 2. 24)

<참고문헌>(References)

- 샌즈-바딜로스, 『히브리어 발달사』, 최명덕, 박미섭 역, 서울: 기혼, 2011.
- 안근조, “A Reconsideration of CD 9:16-10:3 on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성경원문연구』 27 (2010), 183-205.
- 엘리샤 키르론,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한 유대광야문서의 공헌”, 최창모, 박미섭 편역, 『고대히브리어연구』, 서울: 건대출판부, 2001, 185-198.
-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계약 신학”, 『구약논단』 20 (2006), 60-82.
- 이윤경,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טהרה)”, 『구약논단』 15 (2009), 144-161.
- 천민희, “다니엘서와 관련된 쿰란 두루마리와 마소라 본문의 관계와 철자법 비교”, 『성경원문연구』 18 (2006), 43-62.
- Alexander, P. S., and Géza V., *Qumran Cave 4. vol. 19, Serek ha Yahad and Two Related Texts*, DJD26; Oxford: Clarendon Press, 1998.
- Baumgarten, A. I., “The Zadokite Priests at Qumran: A Reconsideration”, *Dead Sea Discoveries* 4:2 (1997), 137-156.
- Carmody, T. R., “Matt 18:15-17 in relation to Three Texts from Qumran Literature (CD 9:2-8, 16-22; 1QS 5:25-6:1)”, Maurya P. Horgan and Paul J. Kobelski, eds., *To Touch the Text: Biblical and Related Studies in honor of Joseph A. Fitzmyer*, New York: Crossroad, 1989, 141-158.
- Charlesworth, J. H., ed., *The Dead Sea Scrolls: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vol. 1 Rule of the Community and Related Docu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Collins, J. J., *Beyond the Qumran Community: The Sectarian Movement of the Dead Sea Scrolls*, Rapids: Eerdmans, 2010.
- Conley, M., “Understanding the Intent of 1QSerek”, *Mogilany* 1995, Krakow: Enigma Press, 1998, 137-149.
- Conway, C. M., “Toward a Well-Formed Subject: the Function of Purity Language in the Serek ha-Yaha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2000), 103-120.
- Cross, F. M., “Appendix: Paleographical Dates of the Manuscripts”, J. H. Charlesworth, ed., *The Dead Sea Scrolls: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I. Rule of the Community and Related Docu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57.
- Fitzgerald, A., “MTNDBYM in 1Q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6:4 (1974), 495-502.
- Garnet, P., “Cave 4 ms Parallels to 1QS 5:1-7: Towards a Serek Text Histor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5 (1997), 67-78.

- Hempel, C., *The Laws of the Damascus Document: Sources, Traditions, and Redaction*, Leiden: Brill, 1998.
- Hempel, C., “The Literary Development of the S-Tradition. A New Paradigm”, *Revue de Qumran* 22 (2006), 389-401.
- Hunt, A. *Missing Priests: The Zadokites in Tradition and History*, New York: T & T Clark, 2006.
- Kesterson, J. C., “A Grammatical Analysis of 1QS 5, 8-17”, *Revue de Qumran* 12:4 (1987), 571-573.
- Knibb, M. A., “Rule of the Community”, L. H. Schiffman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93-797.
- Lucas, A. J., “Scripture Citations as an Internal Redactional Control: 1QS 5:1 20a and Its 4Q Parallels”, *Dead Sea Discoveries* 17:1 (2010), 30-52.
- Martínez, F. G. and Tigchelaar, E. J. C.,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1, Grand Rapids: Eerdmans, 2000. F. 마르티네즈, E. 티스셀라아르, 『사해문서 1』, 강성열 역, 파주: 나남출판사, 2008.
- Metso, S., “In Search of the Sitz im Leben of the Community Rule”, D. W. Parry and E. Ulrich, eds., *Prov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ad Sea Scrolls*, Leiden; Boston: Brill, 1999, 306-315.
- Qimron, E.,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Revell, E. J., “Order of the Elements in the Verbal Statement Clause in 1QSerek”, *Revue de Qumran* 3:4 (1962), 559-569.
- Schiffman, L. H., *Halakah at Qumran*, Leiden: Brill, 1976.
- Thorion, Y., “The Use of Prepositions in 1QSerek”, *Revue de Qumran* 10:3 (1981), 405-433.
- VanderKam, J. and Flint, P., *The Meaning of the Dead Sea Scrolls*, San Francisco: Harper, 2002.
- Wilcox, M., “Qumran Eschatology: Some Observations on 1QS”, *Australian Biblical Review* 9 (1961), 37-42.

<Abstract>

The Issue of the Translation of 1QS col. 5 and its Theological Concerns

Prof. Yoon K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1QS(Serek) is a collection of laws with regards to entry and withdrawal, promotion and demotion of membership with the presupposition that a new member should enter the covenant, which is interpreted and executed by the leadership of the Zadokite Teacher of Righteousness. 1QS must have been highly regarded by the Qumran Community. The extant numbers of the manuscripts of 1QS are 15-16, of which number is higher than the manuscripts of Numbers and Jeremiah. 1QS consists of eleven columns, which are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is, the introductory section of cols. 1-4 and the regulation section of cols. 5-11. This paper focuses on col. 5, which is the very beginning of the regulation section. First, this paper is to translate column 5 into Korean. On the basis of this work, the second task is to examine its theological concerns. By this second task, it is believed to reveal, at least, a look at the Qumran Community.

This paper deals with column 5 by dividing four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5:1-7a) is a good introductory part to inform what these regulations are made for and by whom. This first part is particularly designed to inculcate the members that the Zadokite priests has a privilege to establish laws. The second subsection (5:7b-10a) is to announce that to enter the Qumran Community is equivalent to enter the covenant of the Mosaic Law, which is revealed inalienably to the Community. The third subsection (5:10b-20a) is to separate the Community members from the wicked. This is another way to establish the group identity. The last subsection (5:20b-E) is to teach the members to keep their own position, to be annually examined, and accordingly, to be promoted or demoted.